

‘프로·아마 총망라’ 코리아컵 16강 돌입... 대전 vs 전북 빅매치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16강전이 오는 14일 전국 8개 구장에서 펼쳐진다.

코리아컵은 프로와 아마주어를 총망라해 한국 축구의 챔피언을 가리는 토너먼트 대회다.

지난 1996년 ‘FA컵’으로 창설된 뒤 작년년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대회라는 의미를 담아 ‘코리아컵’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프로축구 K리그1 11개 팀, 프로축구 K리그2 3개 팀, 세미프로 K3리그 2개 팀이 16강에서 격돌한다.

16강 이후에는 추첨을 통해 새로운 대전포가 완성되며, 8강과 준결승 그리고 결승전까지 펼쳐진다.

코리아컵 우승팀은 다음 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바쁜 리그 일정에도 총력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축구 팬들의 주목을 받는 빅매치는 14일 오후 7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예정된 대전하나시티즌과 전북 현대의 맞대결이다.

K리그1 13라운드 기준 대전은 승점 28(8승 4무 2패)로 1위, 한 경기 덜 치른 전북은 승점 25(7승 4무 2패)로 2위를 달리고 있다.

황선홍 감독의 대전은 14경기 동안 21점을 넣으며 K리그1 최다 득점에 오늘 만큼 막강한 화력을 뽐내고 있다.

거스 포엣 감독의 전북은 13경기 11실점으로 K리그1 최소 실점에 빛나는 탄탄한 수비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두 팀은 지난 6일 K리그1 12라운드에서 맞붙었지만, 1-1로 비기면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당시 전북은 경기 막판 전진구가 기록한 선제골로 승기를 잡았지만, 대전은 종료 직전 김인규가 터뜨린 극장골로 무승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 포항스틸러스와 울산HDFC의 경기에서 승리한 포항스틸러스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환호하고 있다. /뉴스1

K리그1 11팀·K리그2 3팀·K3리그 2팀 16강서 격돌 대전과 전북, K리그1 선두 이어 코리아컵 8강 다툰다

부를 거뒀다.

대전과 전북 중 어느 팀이 직전 맞대결 무승부를 딛고 코리아컵 8강으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컵 대회의 묘미인 ‘자이언트 킬링(약팀이 강팀을 잡는 이변)’도 기대된다.

K3리그 시흥시민축구단과 대전코레일 FC는 각각 K리그1 강원FC와 FC서울을 상대한다.

시흥은 2라운드에서 성남FC, 3라운드에서 화성FC(이상 K리그2)를 꺾고 올라왔

다. 대전코레일도 2라운드에서 충북청주 FC(K리그2)를 제압했던 기억을 되살리려 한다.

여기에 K리그2 김포FC, 인천 유나이티드, 부천FC1995도 각각 K리그1 포항 스틸러스, 울산 HD, 김천 상무와 진검승부에 나선다.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16강 일정 ▲19:00 강원FC-시흥시민축구단(강릉종합운동장)

▲19:00 대전하나시티즌-전북 현대(대전월드컵경기장)

▲19:00 김포FC-포항 스틸러스(김포솔더축구전용구장)

▲19:00 FC안양-대구FC(안양종합운동장)

▲19:00 대전코레일FC-FC서울(대전월드컵보조경기장)

▲19:00 수원FC-광주FC(수원종합운동장)

▲19:00 울산 HD-인천 유나이티드(울산산루드컵경기장)

▲19:30 부천FC1995-김천 상무(부천종합운동장)

/뉴스1



광주시, 챔피언서 ‘5·18 특별이벤트’ 펼친다

5월18일 홈경기 승리 기원... KIA 구단에 특별한 응원 제안

5월18일 오후 2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경기가 열린다.

광주시는 이날 ‘80년 오월광주’의 공동체 정신과 민주화 열망을 다시 새기고, KIA 타이거즈 홈경기의 승리를 기원하는 ‘5·18 특별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홈경기에 오월의 의미를 담은 이벤트와 응원단 운영을 KIA 구단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계기로 5·18 기념행사를 민주주의 축제로 확장하려는 광주시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으며, ‘오월광주의 승리’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5월18일 광주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 홈경기에서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응원단을 운영하지 않았고, 팬들

또한 자발적으로 응원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제 5·18 정신을 시민 일상과 문화 속으로 녹여내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5·18 민주주의 축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시는 특별이벤트 제안에 앞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공명 3단체와 5·18기념재단,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오월어머니집,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 등 5월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5월 단체들은 “시대가 변한만큼 5·18 정신의 확장을 위해 5월 18일 당일 KIA 타이거즈 홈경기 응원방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5·18은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역사”라며 “광주를 대표하는 야구 문화 속에서 오월정신을 시민과 함께 재해석하고 승화할 수 있도록 KIA 타이거즈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U-20 축구대표팀, 19일 국내 소집 훈련... 내달 해외 평가전

남자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의 국내 소집 훈련과 해외 평가전 출전 일정이 12일 확정됐다. 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강원 원주에서 국내 소집 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오는 내달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할 U-20 해외 평가전을 대비한 소집이다.

대표팀은 6월2일 노르웨이 U-20 대표팀, 6월10일 브라질 U-20 대표팀과 맞대결을 벌인다.

U-20 대표팀은 오는 9월 칠레에서 열린 2025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원주 소집 훈련에는 28명의 선수가 소집된다.

FIFA가 정한 A매치 기간에 진행되는 소집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 구단과 차출이 합의된 선수들만 구성됐다.

명단에는 김태원(포르티모네세-포르

투갈), 홍성민(포항 스틸러스)을 비롯해 U-20 아시아컵에 출전했던 9명의 선수가 포함됐으며, 이외에 각자 소속팀에서 두각을 드러낸 새로운 선수들이 기회를 얻었다.

유럽과는 김태원과 새로 합류한 황군성(GD차베스-포르투갈), 황승호(SC페를-독일)까지 3명이다.

페예노르트(네덜란드) 이적이 예정된 배승균(보인고), 코펜하겐(덴마크) 이적이 예정된 이경현, 전북 현대 준프로 계약 선수인 한석진까지 2007년생 고교생 선수도 3명 포함됐다.

대학생 선수는 4명이며 나머지 17명은 모두 K리그1, K리그2 소속이다.

내달 예정된 U-20 해외 평가전 명단은 출국에 앞서 발표될 예정이다.

◆ 남자 U-20 대표팀 국내 소집 훈련 참가 명단(28명)

골키퍼 : 공시현(전북 현대) 윤기욱(FC서울) 홍성민(포항 스틸러스)

수비수 : 백인환(FC도쿄) 김서진(천안시티FC) 배현서(서울) 유민준(성남FC) 이예찬(부천FC1995) 조현우(대전하나시티즌) 최승구(인천 유나이티드)

김호진(웅진대) 송범(동명대) 미드필더 : 황승호(페를) 김현민, 이수아(이상 부산 아이파크) 백민규(인천) 백승원(포항) 성신(부천) 문준혁(전주대) 조민서(단국대) 배승균(보인고)

이경현(수원공고) 한석진(전북) 공격수 : 김태원(포르티모네세) 황군성(GD차베스) 백가운(부산) 서명식(안산 그리너스) 진준서(강원FC) /뉴스1

제19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개막... ‘4165명’ 역대 최대 규모

제19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가 막을 올린다.

개회식은 13일 오후 3시30분 김해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며, 16일 폐막한다.

이날 개회식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참석해 학생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

장애체전에는 5개 장애 유형의 학생선수단이 참가해 17개 종목을 두고 겨룬다. 참가 선수단은 총 4165명으로 선수 1926명, 임원·관계자 2239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 패럴림픽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목으로 구성되는 육상 종목 5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는 보급 종목 11개, 그 외 전시 종목 1개 등, 총 17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각 경기는 김해시(골볼, 디스크골프, 배구, 소다운, 슐런, 육상, 탁구, 이스포츠), 창원시(배드민턴, 볼링, 수영, 축구, 진주시(역도, 조정), 사천시(농구), 양산시(보치아, 플로어볼) 등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 메달 집계 상황과 경기 일정 등은 대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회 관련 소식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학생체전은 장애인 신인 선수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장애인 학생 선수들의 최대 스포츠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장미란 차관은 “함께 뛰는 팍팍함, 자신감의 꽃망울’이라는 대회 구호처럼 장애인 학생 선수 모두 최선의 기량을 발휘하고 열정을 꽃피우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학생 선수들이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1

빛과 바람이 기억하는 500년의 흥겨움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주민

백성포만포지

溫故知新

2025.5.29.목 ~ 6.1.일

단오마당(단오제전수교육관) 축제마당(법성포뉴타운문화광장)

주최/주관 (사)법성포단오제보존회/법성포단오제제전위원회 후원 국가유산청 전라남도 영광군외 한국수력원자력주 KH 영광군수업 코비글농협